

# 제주 미술인들이 소매 걷은 아카이브전

제주도립미술관 공동 기획 5개 동인 중심 실물 작품전 도박물관 관점 소장품 '햇빛' 16개 단체 영상 형태로 소개 2층 전시실은 관람 동력 부족



제주도립미술관 1층 기획전시실에 관점 동인 등 제주 미술사에 영향을 미친 동인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제주도립미술관이 제주미술제를 품었다. 이번에 제주도립미술관과 공동 기획으로 제주미술제가 성사된 배경에는 제주비엔날레가 코로나를 이유로 내년으로 연기되며 전시 기간이 비었던 영향이 있었다. '제주동인' 아카이브전은 근래 작고·원로 작가 작품 수집 등 제주미술사 연구에 공을 들이고 있는 도립미술관의 사업 방향과도 맞았다. 제주미술제 전시 현장을 돌아봤다.

▶ 동인 주축으로 제주미술사 한 페이지 조명=제주미술협회를 주축으로 회원들의 근작을 1점씩 내걸던 중전의 방식과 달리 25회째인 올해 제주미술제는 동인 등 단체 활동의 역사를 통해 제주미술사의 한 페이지를 풀어냈다. 1970년대 이후 관점동인, 돌맹이회, 에프알, 보름코지, 산남회 등 제주에서 '유미한 출발점'이 되었다는 5개 동인을 선별해 그들의 어제와 오늘을 실물 작품, 팸플릿 자료 등으로 1층 기획전시실에 펼쳤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던 관점동인 작품들이 모처럼 세상 밖으로 나왔고 1980년대 리얼리즘 미학을 구현하려 했던 제주 최초의 민중미술 동인 보름코지가 전시 작품 압수와 대표 구급에 항의해 내놓았던 성명서도 제주미술의 역사로 공개됐다. 제주미술제의 전신인 자유미술제 공문, 현재까지 활발히 작업하는 여러 동인 출신 작가들의 인터뷰도 볼 수 있다. 다만 작품 수집의 어려움 때문인지 일부 동인은 특정 작가의 작품이 집중됐다.

▶ 미술사 연구는 미술관이, 미술인은 창작으로=제주미술협회, 탐라미술인협회, 재경 한라미술인협회 등 16개 단체의 활동상과 회원 작품을 부속 별 동영상에 담은 2층 전시실은 기획 의도와 달리 활력이 들지 않았다. '동인에서 협회로'란 제목 아래 주로

1990년대 이후 생겨난 미술단체를 영상 형태로 소개했는데 현장 관람 동력이 부족했다. 미술관 측은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보완된 영상물을 올릴 계획이라고 했지만 내년 1월 24일까지 두 달 동안 계속되는 오프라인 전시에도 그만큼 힘을 들여야 했다.

제주미술제는 격년으로 미술제, 워크숍이 번갈아 개최된다. 민선 7기 제주도정 문화 분야 공약 중 하나로 예전보다 예산이 크게 늘었다. 탐라미술인협회 회원이 예술감독을 맡는 등 제주미술협회의 행사를 넘어서려 했지만 아카이브 전시가 아니었다면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제주미술사 연구는 도립미술관에 주어진 과제는 접에서 제주미술제는 지역 미술인들의 창작에 무게를 실은 미술 행사로 더 단단하게 성장하기 위한 방향 모색이 필요해보인다. 전선희기자

## 이승수 백록 소재 '사이' 한림 엔트러사이트 설치



이승수의 '사이'.

커피향이 흐르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곳에 반짝이는 백록이 노닌다. 엔트러사이트(제주시 한림로 564)에서 지난 5일부터 열리고 있는 이승수 개인전이다.

엔트러사이트는 쓸모를 잃은 채 멈춰있던 고구마 전분 공장을 개조한 공간이다. 제주대 교수인 이승수 작가는 이곳에서 근작 '사이'를 선보이고 있다. 제주 설화에 등장하는 백록과 자연을 모티브로 이 섬의 거친 환경과 삶을 품은 제주 화산석, 투명한 느낌의 스테인레스 스틸을 재료로 썼다. 면재와 선재 기법으로 각각 제작된 백록은 공간 내부에 연출된 초록 식물 오브제와 어울려 관객들을 잠시

태곳적 한라산으로 이끈다. 신령스러운 한라산에 살았다는 흰 사슴은 전설로만 남는 것일까. 이 작가는 "재생 공간 속 자연의 신

비로움과 치유의 마음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연과 인간에 대한 관계를 모색해보고자 했다"고 밝혔다. 전시는 이달 19일까지 계속된다. 전선희기자

# 제주4·3 격전지였던 사찰의 수난사

조계종 관음사 등 주축 '4·3 진실과 불교' 주제 전국 순회 거쳐 제주 전시 스님·사찰 등 잇단 피해 유족 신고도 못한 나날들



보릿대를 활용한 이수진 작가의 '나'. 누군가의 손가락 끝에서 생과 사가 갈렸던 고통의 시간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너와 내가 없었다. 그저 모두가 같은 피를 나눈 펜당이였다. 많은 승려들이 죽었다. 사찰은 표적이 되었다. 또 다시 화를 당할까 그저 숨죽여 살아왔다. 또 다시 고초를 겪게 될까 희생자 유족 신고도 하지 않았다."

제주 불교계가 겪은 제주4·3의 고통을 집약해놓은 말이다. 이같은 제주4·3 피해 상황을 미술 작품으로 보듬은 전시가 열리고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주지 허은 스님),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사)제주불교4·3희생자추모사업회(회장 부영주) 공동 주최로 이달 7일부터 16일까지 제주KBS 1층에서 이어지는 '제주불교, 동백으

로 화려하다' 전시다. 윤상길·이수진·김계호 작가가 참여한 이번 전시는 회화, 사진, 도자

작업 등으로 4·3의 진실과 불교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부터 서울, 대구, 전북, 강원을 거쳐온 전국 순회전을 마무리하는 자리다. 작품마다 4·3의 사연을 담아낸 전시로 제주 불교의 수난사를 통해 4·3의 또 다른 고통을 전한다.

관음사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는 2017년부터 4·3 불교 유적지 답사를 거치며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 4·3 관련 종교계 피해 실태가 공식 집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교계가 전시 형식으로 진실규명을 추진했다.

관음사 주지 허은 스님은 "70여 년 전 4·3항쟁 당시 불교 사찰은 공권력과 특정 종교를 가진 불법 폭력단체 서북청년단의 탄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피신처이자 무장대와 토벌대의 격전지였다"며 "스님 16명과 사찰 35개소가 불타는 아픈 역사와 제2의 무불(無佛) 시대를 초래했던 아만적인 역사를 밝히기 위해 전시를 개최한다"고 했다. 문의 723-4373. 전선희기자

## 제주섬에서 걸어 올린 동심을 담다

김정배 동화 등 창작집 해녀·놀이 문화 등 소재

제주섬에서 걸어 올린 동심이 펼쳐지는 작품집이 잇따라 출간됐다.

김정배 작가는 동화 '해녀 영화'를 내놓았다. 어린 해녀 영화를 주인공 공으로 일제강점기 해녀항일투쟁을 풀어냈다. 일본의 수탈 정책 속에서 해녀들이 겪었던 수난, 항일정신과 민족혼을 일깨우고자 했던 마을 공동체의 노력, 부당함에 당당히 맞섰

던 해녀들의 모습 등이 들어있다. 한향선 작가가 그림을 그렸다.

초등학교에 재직하는 강미숙 교사는 첫 동화집 '뽕이 뽑던 날'을 묶었다. 1980년대 초반 제주를 배경으로 제주 언어와 놀이 문화가 아이들 속에 어떻게 살아 있었는지 녹여낸 8편의 동화를 수록했다. 제주어 주석을 달아 아이들이 읽기 편하도록 만들었다.

김란 작가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파랑별에 간 제주 해녀'도 나왔다. '외계인 해녀'에 이은 연작 그림

책이다. 전작에서 제주 해녀 할머니들을 만나 물질을 배웠던 외계인 해, 달, 별이 이번엔 파랑별을 지키기 위해 해녀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해녀 문화의 가치를 전하려 했다. 2020년 해녀문화 우수예술창작 지원사업으로 제작됐다.

김정배 동화집 '정김돌 버팀돌'에는 제주를 돌아다니며 아이들과 함께한 기억들이 있다. 작가는 그 길에 소중한을 모르던 것들이 소중한게 다가왔고, 슬픔이 슬픔을 넘어서는 경험을 했다고 적었다. 그에게 탐라섬은 부모님처럼 정겹다고 버팀돌이다. 딸 김민경씨가 그림을 맡았다. 전선희기자

## 굴밭에 쏟아지는 제주 영화와 음악

랜선 무비콘서트 페스티벌 장·단편 7편 상영과 콘서트

제주 출신이거나 제주에서 활동하는 영화인들이 만든 작품이 제주 뮤지션들과 만난다.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제2회 제주 무비콘서트 페스티벌을 통해서다.

매개라스튜디오가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영화와 공연을 잇다'란 주제 아래 황금빛 굴밭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장·단편 독립영화 7편이 상영되고 뮤지션 강허달림, 양정원, 여유와 설민, 소리깨뽀가 참여한다.

이 축제는 '트리오 보름'의 축하 공연 '굴밭 시네마 콘서트'로 막이 오른다. 이를 시작으로 문재웅 감독

의 단편 '포구'와 '김녕회관', 오명 감독의 '어이 저 곳', 이상목 감독의 음악영화 '비바 라 비다(Viva la Vida)', 김일형 감독의 '전조동'과 이지은 감독의 '앞바다', 고훈 감독의 '어머'이 일정을 달리해 차례로 상영된다. 매개라스튜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영화는 상영 일정 당일에만 공개된다. 문의 0507-1364-5212.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 광 수**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바다환경보전협의회장)

**광수물산 가족 일동**